



고려해운

조난중인 중국선원 구조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KMTTC PUSAN호(선장 홍성열)가 중국 시아먼항을 출항하여 상하이항으로 항해중인 11월4일 09시15분경 중국 근해(닝보항 남동쪽 약 100마일 부근)에서 조난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작업을 벌인 결과, 성공적으로 구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선원은 중국 국적의 MIU BI SHOU DO씨로 밝혀졌으며, 구조당시 11시간 이상을 해상에서 높은 파도와 싸우며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사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선은 11월3일 23시30분경 항해 중 전복되었으며, 당시 어선에는 10명의 선원이 승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KMTTC PUSAN호에서 구조한 MIU BI SHOU DO씨를 제외한 9명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MIU BI SHOU DO씨는 KMTTC PUSAN호가 11월4일 23시경 상해에 접안하는 즉시 닝보 해사국 및 출입국 관리 담당의 보호하에 하선하였으며, 당시 중국 관계자는 KMTTC PUSAN호 측에 자국 선원 구조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은 11월5일 오전 중국상해인민광고방송국(상해내 유력 라디오 매체)에서 긴급 뉴스로 방송됐다.

대한해운

이 회장 '올해의 CEO' 선정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이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07 올해의 CEO' 중견·벤처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포브스코리아와 한국기업평가는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 상장기업 1568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중견·벤처부문에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을 '2007 올해의 CEO'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브스지 인터뷰에서 이진방 회장은 “주가가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며 “사업이나 주가나 산이 깊으면 골도 깊는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반에 LNG선 사업에 뛰어들었고, 2002년부터 건화물 사업에 필요한 배를 많이 확보한 전략이 주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세계적인 철강회사들이 제철소 설비를 증설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가 화력발전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 2010년~2012년까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2010년까지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호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한해운은 올 상반기에 벌크선 10척, 유조선 1척 등의 구매에 63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유조선은 중조선으로 지난 6월에 인수했으며, 벌크선은 2009년~2010년 인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해운 이진방 회장은 11월7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대한해운 발전기금 5억원 기증식' 에서 기탁증서를 전달하였다.

대한해운은 해양 특성화 선도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에 매년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발전기금은 '연구장학기금' 으로 교수진의 해양연구개발 및 우수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장이자 한국해양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인 이진방 회장은 국내 해운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뿐 아니라 해양연구 보조 등의 다양한 사회책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한해운은 최근 인하대학교에 해양법 국제 학술대회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 해양 포럼에 '2007 세계 해양 포럼 행사' 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STX팬오션 영국법인 98,000 DWT급 벌크선 2척 발주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영국법인은 10월31일 98,000 DWT급 벌크선 2척을 STX 대련조선소에 발주했다.

금번 신조발주는 영국법인의 Atlantic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영국법인은 사선대를 구축함으로써 화물영업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용선 위주의 선대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arket에서의 신인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법인은 2005년 설립 이후 벌크시장의 고시황 하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금년 예상 운항이익이 3천만불을 상회하는 괄목할 만한 영업성



과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러한 자체 수익원을 바탕으로 사선을 발주하게 된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STX팬오션은 11월8일 출범 3주년을 맞아 오는 2010년 Global TOP 5 해운사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종철 사장은 이날 출범 3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을 돌아해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밝히고, “인력 면에서는 지난 3년간 육·해상 각각 130여명의 인력이 새로 STX팬오션의 가족으로 합류하였고, 선대운영 규모도 약 400여척으로 대폭 신장하여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또 “영업형태도 과거 본사 중심의 Dry-Bulk위주 영업활동에서 벗어나 해외 Network을 강화하여 법인중심의 현지 완결형 Business Model을 개발하고 Tanker, Container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의 Portfolio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싱가포르 상장과 국내 상장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여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특히 올해는 해운시황 호조와 임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매출 55억불, 영업이익 5억불에 달하는 사상 최고



의 실적이 예상된다"며,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격려했다.

이 사장은 "내년에는 우리의 기존 핵심사업에서 Full Potential을 이끌어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를 집중하여 우리가 지난 3년간 이룩한 성과를 뛰어넘을 발판을 다지는 해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10년 국내 제1의 선사를 넘어 Global TOP 5 해운사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합심·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금상선

제1회 해운농구리그 우승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이 해운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시작된 제 1회 해운농구리그 정규시즌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 2월 첫경기를 시작으로 11월20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성공리에 막을 내린 제1회 해운농구리그는 지난 1년간 팀당 8경기씩을 치루며, 건전한 경쟁을 통한 적선사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건강한 해운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원년대회 우승팀 장금상선은 탁월한 실력과 팀웍

및 훌륭한 매너로 시종일관 리그선투를 달리며 해운리그를 이끌어왔다.

전반기 전승으로 장금상선의 독주가 예상 됐지만, 후반기 들어 참가선사들의 전력상승과 인원보강 등으로 인해 장금상선은 6승2패로 정규리그를 마감하며 리그 원년 우승을 차지했다.

제1회 해운농구리그는 앞으로 12월경 치루어질 2위팀 현대상선, 3위팀 고려해운의 플레이오프를 거친 승자와 장금상선의 챔피언전을 끝으로 07년 첫 시즌을 마감할 예정이다.

내년시즌엔 선우상선, 유코카캐리어스, 대형포워더팀 등을 추가하여 리그가 운영 될 예정이다. 내년 해운농구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해운업체는 리그 총무 고려해운 임정근 계장에게 오는 12월말 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경기내용 및 결과는 해운농구리그 공식카페(cafe.daum.net/haeunleague)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S해운

탱커 1척 신조키로

KSS해운(대표 윤장희)은 11월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4,000DWT급 탱커(오일/케미컬 탱커) 1척을 신조하기로 했다.

신조금액은 약 155억원으로, 건조는 일본 Shitanoe조선소에서 담당하며, 선박은 오는 2010년 6월30일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인수조건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이다. KSS해운은 이번 탱커 신조는 중장기 선박 확보 계획에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KSS해운 신규 투자내용] △4,000DWT급 OIL/CHEMICAL TANKER 1척 신조 △투자금액(원) : 155억원(자기자본 대비: 15.32%) △투자목적



: 중장기 선박 확보 계획에 따른 선박투자 △투자
기간 : 2007년 4/4분기~2010년 6월 30일까지 △
투자내역의 투자금액은 향후 투자 환경 변화와 부
대비용의 발생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조강해운

중부발전 유연탄 용선입찰 낙찰

조강해운(대표 이광희)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인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1월21일 국적선사를 대
상으로 6만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수송선박 용
선입찰에서 수송선사로 낙찰됐다.

이번 입찰은 전자입찰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중부
발전은 입찰에 참여한 선사중 26.60달러를 써낸
조강해운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조강해운은 1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인도네시아 Samarinda에서 유연탄 6만톤(±10%)
을 싣고 보령(고정)항구까지 운송한다.

창명해운

케이프사이즈 2척 신조추진

창명해운(대표 이경재)은 한국선박운용의 동북아
35호와 36호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케이프사이즈
벌커 2척을 신조하기로 했다.

한국선박운용은 11월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동
북아 35호와 36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인가를 받
았다고 밝혔다.

동북아 35호와 36호가 해양부 인가를 받음에 따
라 오는 12월중에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박
인도일은 2010년으로 대한조선에서 건조하게 되
며 선가는 척당 8900만불이다.

선가의 18%는 선박펀드를 통해 모집되고, 72%는

DVB Bank에서, 그리고 나머지 10%는 창명해운이
부담하기로 했다.

천경해운

목포-도쿄-요코하마-나고야항로 개설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오는 12월초부터 주 1항
차로 목포-도쿄-요코하마-나고야간 정기 컨테이
너 서비스를 개설한다.

목포시는 이와 관련 11월9일 오후 2시 시청 상황
실에서 천경해운, 목포신항만(주)와 대불국가산단
에 소재한 생산업체인 (주)제오빌더 등 25명이 참
석한 가운데 '대일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 협약
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천경해운과 (주)제오빌더, 목포신항만(주)
는 목포-도쿄-요코하마-나고야를 잇는 대일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 협약체결을 통해 목포신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
하게 되었다.

이번 대일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위해 천경해
운은 746TEU급 선박인 '스카이 라이트(SKY
Light)' 호를 비롯한 3척의 선박을 번갈아 투입할
방침이며, 연간 7,000TEU의 제오빌더에서 생산
되는 제오라이트 일본 수출품을 수송하게 된다.

목포시는 "이번 항로 개설은 목포시와 전남도에
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하여 전남도, 목
포시, 목포신항만(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
루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와 전남도는 목
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인센
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목포신항이 2004년 11월 개
장된 이래 자동차, 철 구조물, 미군화물 등 전략화
물을 유치해 10월 현재까지 702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했으나, 지역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신생 항만으로서 해외인지도가 낮아 화물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정기 컨테이너항로 개설을 계기로 목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기업·단체, 지역사회가 더욱 노력하여 목포신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가자고 협력을 강조했다.

태영상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11월30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는 마케팅, 조직혁신, 지식·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이윤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금융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우대, 지원하게 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종합물류기업(CILC)으로 인증 받은 태영상선은 이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으로, 그동안 착실히 추진해 온 지식경영 및 품질경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1955년 창립된 태영상선은 최근 6,000DWT급 벌커 4, 5차선을 발주하는 등 지속적인 선대 확충으로 영업력 및 시장위상 제고를 강화하는 등 대외주 서비스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한진

방폐물 해상운송사업자로 선정

(주)한진(대표 이원영)은 국책사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해상운송 전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향후 20년간 울진, 고리, 영광 등의 원전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하 방폐물)을 지난 11월9일 착공한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이하 방폐장)로 운송하는 국내 유일의 환경물류 서비스이다.

특히, 한진은 방폐물을 방폐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방폐물 운송 전용선박도 건조한다. 이 선박은 국내외 법규 및 관련 기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안전성과 견고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이중선체구조, 위성항법장치, 자동 충돌방지장치, 2중 엔진 및 추계장치, 화재예방장치, 비상전원설비, 방사선 안전장비 및 차폐설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건조 과정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법에 따라 검사 및 증서발급 등을 정부대행기관(KR: 한국선급)에 의하여 실시하고, 별도의 감리 회사로 하여금 감리 활동을 수행토록 하여 최고의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전장 79m, 폭 16m, 총 190TEU를 적재할 수 있는 2,600톤급 전용선으로 최악의 순간에도 폐기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 특수 선박이다. 한진은 방폐물 운송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 환경물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한진해운

구주정기항로 서비스 개편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www.hanjin.com)은 CKYH 얼라이언스(코스콘, 케이라인, 양밍라인, 한진해운)와 함께 11월말 신규노선 CNX 개설과 더불어 기존 노선의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부터 구주노선을 전격 개편한다.

금번 개편을 통해 총 7개 구주노선 중 5개 노선이 개편되며, 기항지 일부 조정과 신규선박 교체 투입을 통해 서비스 다양화와 선복(Vessel Space) 공급량을 증대 시킨다.

FEX(Far East Europe Express) 노선의 경우 12월18일부터 기존 5,500TEU급 선박 3척을 6,500TEU급으로 순차적으로 교체 투입하여 한국, 중국지역에 선복(Vessel Space) 공급량을 증가시켜 고객의 안정적인 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해와 홍콩의 경우 각각 주 3회와 2회 서비스에서 주 4회로 증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해운은 CKYH 얼라이언스와 함께 금번 구주 서비스 개편을 통해 다양한 기항지와 스케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선복 공급을 통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간 및 각 선사별 선박 투입은 다음과 같다.

□ AEX(Asia Europe Express) △서비스구간 : 상하이-닝보-카오슝-포트켈랑-콜롬보-함부르크-로테르담-르아브르-콜롬보-포트켈랑-홍콩-상하이 △투입선박 : 5,500TEU급 X 8 (HJS) △주요변동사항 : 안티안 기항에서 카오슝 기항으로 변경

□ FEX(Far East Europe Express) △서비스구

간 : 신짱-광양-부산-안티안-싱가포르-함부르크-로테르담-펠릭스토우-싱가포르-카오슝-신짱 △투입선박 : 5,500/6,500TEU급 X 8 (HJS) △주요변동사항 : 카오슝 기항에서 안티안 기항으로 변경, 5,500TEU를 6,500TEU로 순차적 변경

□ CNX(China North Europe Express) △서비스구간 : 청도-상하이-홍콩-싱가포르-제다-함부르크-엔트워프-르아브르-제다-싱가포르-청도 △투입선박 : 4,000-6,900TEU급 X 8(HJS, UASC) △주요변동사항 : 11월20일부 신규 노선 개설

□ NCX(North China Express) △서비스구간 : 상하이-닝보-샤먼-홍콩-난샤-싱가포르-로테르담-함부르크-엔트워프-싱가포르-홍콩-상하이 △투입선박 : 8,000/9,000/10,000TEU급 X 8(COSCO) △주요변동사항 : 대련, 청도 기항에서 샤먼, 난샤 기항으로 변경

□ NNX(New North China Express) △서비스구간 : 대련-신짱-청도-안티안-홍콩-펠릭스토우-함부르크-로테르담-난샤-대련 △투입선박 : 8,000/9,000TEU X 8(COSCO) △주요변동사항 : 샤먼, 난샤 기항에서 대련, 청도 기항으로 변경

□ SCE(South China Europe Express) △서비스구간 : 상하이·닝보·샤먼·카오슝·안티안·싱가포르·로테르담-펠릭스토우·엔트워프·싱가포르·카오슝-상하이△투입선박 : 7,500-8,000TEU X 8(K-LINE, YML)

□ JES(Japan Europe Service) △서비스구간 : 고베-나고야-도쿄-홍콩-싱가포르-포트사이드-로테르담-펠릭스토우-르아브르-포트사이드-싱가포르-안티안-고베 △투입선박 : 5,500TEU X 8(K-LINE, YML)



현대상선

해운전문분야 해외인력 교환

현대상선(대표 노정익, hmm21.com)이 해운법 등 전문분야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국제상호보험조합인 영국의 UK P&I Club(이하 P&I) 및 로펌 Holman Fenwick & Willan(이하 HFW)과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P&I와 HFW로부터는 계약·분쟁 전문가와 변호사가, 현대상선으로부터는 보험법제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각각 상대방 회사로 파견하는 형태이다.

P&I 아시아퍼시픽 본부에서 파견된 펠릭스 라이(Mr. Felix Lai)씨와 로펌 HFW에서 온 스티븐 와이즈(Mr. Steven Wise)씨는 11월19일부터 12월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해 각각 1주일간 현대상선에서 근무했다.

이외에 P&I 런던 본사 및 홍콩지점에서 폴 세션스(Mr. Paul Sessions)씨가 펠릭스 라이 씨와 함께 현대상선을 방문해 11월20일 화요일 현대상선 본사에서 열린 해운법규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대상선 각 영업부서와의 회의 및 세미

나를 통해 해사법률분쟁에 관한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해운실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각종 계약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소들을 비롯해 현업 부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까다로운 해운 법규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인사동 방문 등 한국문화 체험과 함께 현대상선의 LNG 선박을 직접 방문하여 해운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몸소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홍콩으로 파견된 현대상선 직원 또한 2주간의 일정으로 영국 해상법에 대한 이해 및 각종 계약 분쟁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실무연수를 받았다.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한 현대상선 측은 “해외의 해운법제 전문가들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까다로운 해운법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운 전문 로펌, 보험회사 등 해외 전문 인력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국제적인 해운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흥아해운

케미컬 탱커선 3척 신조발주

흥아해운(대표 이운재 회장)은 11월17일 문정동 본사에서 이운재 회장과 녹봉조선소 유정수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만 2,000DWT급 케미컬 탱커선 2척에 대한 신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발주한 선박은 2007년 1월부터 발효될 강화된 국제 규격(IMO rule)에 부합하는 IMO II Type 케미컬 탱커선으로 전 화물창이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재질의 탱크로 건조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급 사양 선박이다.



올해 4월 6,600DWT급 선박을 매입하면서 케미컬 탱커선대의 고사양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을 추진 중인 당사는, 금번 발주한 케미컬 탱커선 두 척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화물운송능력이 기존 선대보다 70%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2008년 8월과 12월에 각각 인도 예정인 2척의 선박은 고부가가치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여 매출 증가와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며, 그동안 극동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편중되었던 서비스 범위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인도와 중동까지 광역화 시킴으로써 인도 및 중동 등지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을 선점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동사는 이어 12월4일 케미컬 탱커선 1척을 추가로 발주했으며, 금번 발주된 선박은 지난 11월 발주한 2척의 케미컬 탱커선에 이어 전 화물창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인 IMO II Type의 최고사양 선박이다.

2011년에 인도될 예정인 본 선박으로 고부가가치 화물 서비스 및 광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world wide 서비스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원가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컨테이너선 위주의 정기선 영업에서 탈피하여 케미컬 탱커 선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선대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신조선 확보는 싱가포르를 지역 거점으로 World wid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 컨테이너 정기선서비스에 치중했던 사업구조를 다각화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태순 장금상선 사장 총재 취임

장금상선 정태순 사장이 사단법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새로운 총재가 됐다.

이와 관련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각지방 본부장들은 11월13일 오후 5시 명동 로얄호텔에서 만장일치로 정태순 사장을 신임 총재로 추대했다.

이로써 정태순 신임총재는 C&그룹 임병석 회장에 이어 향후 3년간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게 되었다.

이날 총재 이취임식에서는 임병석 전 총재가 정태순 신임 총재에게 단기를 전달했으며 또한 정태순 신임총재는 임병석 전총재에게 감사패와 꽃다



발을 전달했다.

임병석 전총재는 인사말에서 “총재로서 활동한지 6년이 되었는데 막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다”며, “오랫동안 총재로 활동하면서 음악회를 개최했던 것과 해양환경 활동 등을 했던 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에서 개최한 지역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후원도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병석 전 총재의 이임사에 이어 정태순 신임 총재는 “전임 총재님의 거듭된 요청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미약하나마 전임 총재님과 회원님들이 이끄신 것을 이어 가겠으며 앞으로 이를 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순 신임 총재는 1948년 12월20일 경남거창에서 태어나 서울 동성고등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를 각 68년과 71년에 졸업했다. 정태순 신임 총재는 또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중항로정기선사 협의회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교의 요트선수단 후원 회장과 서울지역 CEO클럽회장을 역임하며 모교발전과 장학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한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98년 설립되어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환경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매년 바다청소 및 주요 하천 청소, 바다환경의 중요성 홍보활동 등 바다살리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보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대한민국해양환경대상을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한국해양대학

오거돈 전 장관 제5대 총장에 선출

한국해양대학교 제5대 총장 제청자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출됐다.

한국해양대학교는 11월16일 교수, 학생 대표, 직원 등으로 이뤄진 선거인단 570명이 총장 제청자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 전 장관이 득표율 55.43%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 2차 투표에서도 오 전 장관은 1위를 했으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3차 투표까지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는 외부 인사인 오 전 장관과 박한일 해양개발공학부 교수를 포함한 7명의 교수가 후보로 나섰다.

오 전 장관은 당선 소감에서 “교수활동과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해양계의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인생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어 출마했다”며, 타 후보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면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학발전기금 등 재정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 대학과의 통폐합과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 해양수산 관련 대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부산대 등과 통합하는 것은 자칫 흡수 통합의 형태로 해양대의 입지를 좁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약으로 학내 통합적 리더십 확보, 국립대 법인화 반대와 해양특성화 강화, 발전기금 300억 원 확보, 수익사업 모델 개발, 우수 학생 유치 등을 내세웠다. 오 전 장관은 해양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총장임용 제청을 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면 3월부터 공식적인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